

#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

##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11월, 초·중·고 증식 지원 학생 3,000여명과 오지 지역 주민, 양로원, 장애인 복지관 등 3,000여명, 총 6,000여명에 대한 무료 건강 상담 및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어느덧 2천년이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진 탓인지 전에는 흔이 볼 수 있었던 연말 연시를 알리는 거리의 화려함도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이웃을 향하는 따뜻한 손길마저 줄어들었다는 것. 고통은 나눌수록 적아지고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했는데, 이웃을 생각하는 작은 마음만은 항상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한해 '사랑의 현장을 찾아서'를 통해서 사회 소외 계층과 불우한 이웃은 물론 지역 주민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다. 보다 더 많은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보람있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 한해도 무료 건강 검진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작으나마 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부산 지부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시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베데스다원, 성프란치스코의 집, 실로암의 집 등을 방문하여 원생 200여명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 강원 지부는 지난해 11월 4일, 춘천 시립 복지원을 방문하여 노인 50여명에게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28일에는 인제 애항원을 방문하여 원생 50여명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 대구 지부는 지난해 11월, 대구 시내 초·중학교 증식 지원 학생 450여명에게 무료 건강 검진 및 청소년 성 상담을 실시했다.



▲ 충북 지부는 지난해 11월 초, 농협 지역 본부의 협조를 얻어 농협 금요 장터에서 지역 주민 50여명, 제천시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장애인 시설인 시 복지관을 방문하고 원생 100여명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 한국건강관리협회 무료 건강 검진 현장



▲ 대전·충남 지부는 11월 한 달 동안 보건의료대상자, 시·도민 지역주민, 대전 인애원, 대전 대덕 소년원 등을 방문하여 1,000여명, 논산 은진초 외 17개 초·중학교 중식 지원 학생 350여명 총 1,350여명에게 무료 건강 상담 및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 전북 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애인 시설인 전주 동암 재활원 원생 50여명과 양로원 시설인 전주 소망 요양원 원생 50여명, 산간·오지 지역 주민 100여명 등 총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의 협조를 얻어 무료 건강 상담과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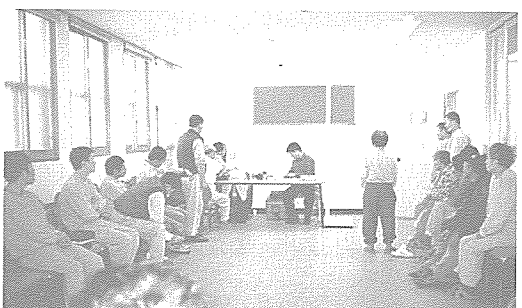
▲ 광주·전남 지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사회 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노인 복지 시설인 천혜 경로원과 도 장애인 복지관을 방문하여 원생 200여명에게 무료 건강 상담과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 경북 지부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태하중 외 47개 초·중학교 무료 급식 지원 학생 1,000여명에게 무료 건강 상담과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 경남 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 무료 검진 특장차를 이용해 저소득층 300여명, 창원 성심원 원생 100여명, 팔용 초등학교 외 초·중학생 급식 지원자 1,300여명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 제주 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시 사회 복지과의 협조를 얻어 제주 정신 요양원생 50여명에게 무료 건강 상담과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또한 도내 31개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원생 중 보육료 면제자에게도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